

# 대한양계협회 소식

## 도계유통 관련 각 업계별 대표 연합회의

-서울시, 축협, 생산자, 유통상인  
도계업자 등 회의실 초만원-

본회는 지난 3월 28일 서울시관계자, 축협중앙회, 생산자 및 단체, 유통상인 및 단체, 도계업자 대표 등을 한 자리에 초청, 현 도계유통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다.

문밖에까지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오후 2시 반에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본회 임덕성 사무국장은 각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현재 우리는 도계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관계당국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참석자들에게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 육계분과위원회 장민기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먼저 서울시 위생계장이 시행방침을 밝힘으로써 열띤 토의의 들어갔다.

논의의 초점은 도계시설의 부족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도계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아 돌아가는 곳도 있다고 서울시와 도계업자측이 말하자, 이에 생산자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강력히 반발했으며 유통상인들도 가세하였다.

결국 생산자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현 실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앞으로 육계업 관련자 모두가 도계유통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생산자들은 서울시 당국에 도계의 위생적처리시설 설비, 적정가격에서의 수매, 간이도계장 당분간 인정 등을 건의했다.



△도계유통관련대표 회의의 광경

## 육계생산자 월례회의 - 3월 28일, 본회의회의실 -



△육계생산자 월례회의의 광경(도계시설 및 냉장 시설의 부족으로 생산자 피해만 가중되고 있어 생산자는 입추조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3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생산자 월례회의가 전국 지역대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육계생산자 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3월부터 서울지역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생계유통단속이 실시된지 한달이 경과되어 이에 대한 닭고기 유통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육계생산자대표와 서울시관계관, 축협유통 담당책임자, 도계장대표, 닭고기 판매상인 대표가 모여 좌담회가 열렸는데, 서울시 관계관 및 도계장 대표는 서울시에 소비되는 닭고기의 도계처리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주장했는데 생산자 및 닭 상인들은 도계처리시설의 부족과 도계장의 위생처리미비 및 유통과정에서 냉장 시설 부족으로 닭고기변질과 이로인한 소비자하를 우려했다. 또한 생산자대표는 관계당국에서 닭고기수매 및 도계품 소비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을 주장했으며 도계장측에는 위생적인 도계처리를하여 소비자 보호가 떨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어서 열린 육계생산자 회의에서는 중부지역 닭값이 kg당 700원~750원, 경남북지역이 850~900원의 약세를 보였고 유통현황은 중부지역의 일부가 약간 체화됐을뿐 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의 소비저하로 가격상승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입추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생산자 단체 협의회 모임 가져

-단체장 건설부, 국회 방문 등 협의-

본 협회를 비롯한 4개 축산인 생산자단체(양돈협회, 낙농비육협회, 종축개량협회)는 지난 3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회관운영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모임에는 본 협회를 대표하여 황인옥 전무가 참석했으며 장세용 부장(양돈협회), 김남용 전무(낙농비육협회), 송성현 국장(종축개량협회 사무국) 등과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장, 건설부 및 국회방문 주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정(축사에 대한 과태료율 인하)건의차 건설부장관 및 국회 건설분과위원장 방문 주선키로 합의.

○국회 건설분과위원장 주선-양돈협회

○건설부장관 주선-양계협회

2. 축산회관 공증: 전번 합의된 내용에 의거 공증 구비서류 조속 제출키로 합의

3. 회관운영 예산 및 결산 공개: 금후 축산회관의 예산, 결산을 입주단체에 공개, 주요사항은 사전협의 운영(종축개량협회)

4. 회관 수리: 2차 공사로 지하실(회의실) 및 이중창 공사 착수예정

한편 동 협의회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에 양돈협회회의실에서 열번째 정기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황인옥 전무를 비롯하여 한백용(양돈협회)전무, 김남용(낙농비육협회)전무, 송성현(종축개발협회)국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육류가격정책에 관한 간담회개최, 생산자 단체간의 협조체제 강화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 용인 분회 현판식 - 3월 12일 성황리에 -



△축사를 하는 본회 황인옥전무

본회 용인분회(분회장 임종옥)는 3월 12일 12시에 분회 회의실에서 본회 황인옥전무를 비롯한 지역 양축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최종필 부분회장의 사회로 경과보고, 개회사에 이어 황인옥 전무는 축사를 통해 「양계산업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과 본회와 지역 분회의 긴밀한 유대와 상호 기술, 유통 등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농수산부의 양계기반 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언급, 식장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수지면 농업협동조합장 이원삼씨의 축사와 용인군 축산협동조합장 남기성(분회이사)씨의 격려사가 있었다.

1981년 9월 2일 판교 풍덕계우회로 발족하여 회원들의 신속한 정보와 유통질서를 위해 양계협회 분회가입을 신청 지난 2월 17일 제 1회 이사회에서 용인분회로 승인되어 현판식을 갖은후 분회원들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본회 전무와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협회업무와 선진국가의 도계유통 과정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이 비교 논의되어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용인분회 연혁

- ▲1981년 9월 2일 판교, 풍덕계우회 발족
- ▲198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용인분회 가입을 의결
- ▲1983년 2월 17일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 ▲1983년 3월 12일 현판식 개최



△용인분회 현판식

### 채란양계업 발전 위한 회의 개최

지난 3월 20일 맘모스호텔 청량원에서는 양계업 발전과 채란업 발전을 다지는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택영(본회 부회장겸 한국계우회장)씨의 주재로 오후 6시에 시작된 이날 모임에는본협회 황인옥 전무를 비롯 서울경기 양계조합 대표, 한국, 천호, 수원, 동두천 계우회 대표, 현대양

계 사장 등 14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종합하였다.

○양계업계의 일시적인 불화나 오해를 일소하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의견을 규합하는 한편, 서로 협조하여 전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행동을 통일키로 합의.

○계란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정확히 교환,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행동을 통일.

○시세속보는 계우회에서 발행치 않고 대한양계협회와 현대양계에서만 발행.

○서울·경기 양계조합에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에 참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을 위해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 제 3 회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3월 15일 본회의의실 -

제 3 회 채란분과위원회가 전국의 채란양계업자 20여명이 모인가운데 지난 3월 15일오후 본회의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고창양계 신흥종사장(본회 부회장)의 효율적인 계사환기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닭이 가장 좋아하는 계사의 환경을 만들때 생산성은 높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전체하고 현재 국내에서 평당 40~50수 정도 사육하는데 비해 외국의 경우는 적합한 환기로 평당 110수 정도까지 사육하고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슬라이드를 통해 계사에서 효율적인 환기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어서 분과위원회에서 고태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성을 갖고 많은 채란양계인의 관심속에 매월 개최되는 분과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국내 채란업계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을 밝혔다.

본회 황인옥전무의 협회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채란분과위원회 광경

개최된 분과위원회는 최근 난가의 형성 및 전망 분석과 식생활개선 및 정부미 소비확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던 후 난가고시와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각지역 현황 등의 의견을 나눴다.

기타 사항으로 채란양계은 축사 평당소득으로 환산할때 특란가격이 60원이라해도 양돈업등에 비해 소득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양계업자의 힘이 미약한데에 기인한다고 보고 더욱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 GNE 백신 공급

### - 종계에 한해 7월경부터 -

닭의 전염성질병의 수가 많아지고 예방접종의 횟수도 증가함에따라 백신접종의 번거로움은 물론이지만 닭이 받는 스트레스로 양축가들의 불편은 대단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감보로, 뉴캐슬, 산란저하증후군의 3개 질병을 한번 예방접종으로 10개월 예방할 수 있는 외국에서 개발된 약품을 알선공급키로 하였다.

우선 국내산업 등 제반여건으로 종계에 한하여 공급키로 하였으며 7월경부터 이 백신이 공급될 경우 종계업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양계산업전 및 채란양계업계 시찰단 귀국

- 4월 15일 귀국 보고회 개최 -



△본회 채란분과 위원들의 일본 양계 산업 시찰단(좌) GP 센타 계란선별포장광경(우)

본회 채란분과위원들로 구성된 일본 양계산업 전 및 채란업계 시찰단이 지난 3월 23일(수) 출국해 3월 31일 귀국했다.

고태영부회장(채란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제13회 전일본양계산업전 참관을 마치고 일본 전역을 돌며 부화장, 채란양계장, G.P센타 등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현황을 주로 시찰한 바 있다.

본 시찰단은 4월 15일(금)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귀국보고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날 귀국보고회는 일본 채란양계업계현황과 우리나라 계란유통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농수산부관계관과 축협 실무자, 본회 채란분과위원, 관심있는 양계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양계산업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 장 : 고태영(본회 부회장, 채란분과위원장)
- 부단장 : 황인옥(본회 전무)
- 총 무 : 노영한(본회 편집국장)
- 시찰단 : 노광순(운암농장)
- 한 순(홍일농장)
- 이학복(송일농장)

- 왕희오(신일농장)
- 한응환(자양농장)
- 김인영(양지농장)
- 최정삼(정화농장)
- 한명복(교하농장)
- 김중경(오경협업농장)
- 박재유(부천농장)
- 우원현(공흥농장)
- 손종현(신진부화장)

### 닭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 가축위생연구소 협조얻어 -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회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와 협조하여 닭의 혈청을 채취하여 혈청학적 검사방법에 준하여 각종 닭 전염병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에 의한 효력측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염병의 진단과 정확한 백신접종 시기를 알려주어 양계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혈청검사 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시설과 자금 등의 사정에 의하여 전체 양계

업자를 대상으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혈청검사사업 추진으로 해당 양계업자는 병성감정실과 최고의 수의사를 채용한 효과를 얻게 된다.

본회는 소요경비의 50%는 자담으로 나머지는 협회에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정된 농장에 한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역적으로 규모별로 용도별로 안내하여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회원의 수가 한정되었으므로 조속한 신청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것은 전화 752~6917 (본회 편집국)로 문의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신고 9월말까지 연장

본회와 양돈협회(회장 전동용), 낙농비육협회(회장 황영구)가 공동명의로 지난 3월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과태료 인하에(본지 3월호 p115참조) 대해 지난 3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고쳐 무허가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9월 30일까지 6개월을 연장기로 했다.

본회를 포함한 3개 생산자단체는 지난 2월 건설부와 국회 농수산분과, 건설분과에 각각 과태료가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영세한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차원에서 현행가중치를 인하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 건설부에서는 미진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전 축산인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코자 신고기간을 9월말까지 연기해 줄 것과 가중치(과태료 산정기준)를 호텔(가중치 1)의 20분의 1인 0.05정도로 하향조정 해 줄것과 기왕에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허가축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을 청와대 민

원실을 통해 대통령각하께 건의한 바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신고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제주지부 정기총회

본회 제주지부(지부장 강태호)는 제 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8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수지결산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승인을 가결했다. 또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사업, 선진지시찰 등 83년도 주요사업내용을 확정했다.

## 본회 방문



〈오쿠무라씨〉



〈吳戊己씨〉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본회를 방문한 오쿠무라(奥村由己: 일본 野澤組畜産部次長)씨와 우(吳戊己: 중국 尚德實業股份(株)사장)씨를 맞아 한국양계현황과 자국들의 양계산업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상호 정보교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들은 본회 임덕성 사무국장의 안내로 서울시내의 고궁을 관람한 후, 4박 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3월 6일 이한했다.